인복위, 근로·복지장학생 모집

관련서류 구비 서울 9일 수원 10일까지

양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복지근로장학 및 복지장학 희망자 신청접수를 서울 9일, 수원은 10일까지 받는다.

서울 복지근로장학의 경우 선발인원은 33명이고 신청자는 신청서만을 내면 된다. 단 식당의 경우는 주민등록본과 학부모지방세 1통씩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원은 지난 학기 학내 복지매장 및 자판기 운영수익금으로 매학기 인복위에서 선발하여 지급하는데 수혜희망자는 복지장학의 경우 ▲장학신청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해당자) ▲재해사실증명서(대사자)의 서류를, 복지 근로장학의 경우는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서울이 6일, 수원이 15일 있게 된다.

수원의 경우, 인복위는 올해 처음 예년과는 달리 근로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선발자들은 강남역 승차장의 질서유지, 교문차량통행 규제, 재활용품 수거, 학내 주차단속 등에 투입되며 한학기당 2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 업무 전산화 수원 학생처 개발

수원캠퍼스 학생처는 하계방학중 장학업무프로그램인 '장학'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준비된 것으로 이상권(전자공학, 92년졸)씨와 김성한(전자공학, 92년졸)씨에 의해 개발되어졌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교내 RAN망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 수령증 발부 등이 모두 전산처리 될 수 있어 이중 장학신청을 방지할 수 있고 인력·시간의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취업시 필요한 장학금 수급내역도 졸업생의 학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학금 지급과 단대·학년별 통계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학생처는 2학기에 이전 5년치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전산화 작업하여 94년 졸업생부터 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학생 휴게실 환경심사

수원총여, 아나바 장터 개설도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는 개강사업의 일환으로 각 단대별 여학생 휴게실 환경미화 심사를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미화 심사는 여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스스로의 주인된 자세 고양, 여학생 모임 건설을 목적으로 총학생회 중앙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간부 및 학우간의 협동성, 단대특성 고려 등을 중심으로 심사될 예정이며, 결과는 13일 발표한다.

한편 총여는 일상시업으로 생활종합정보지의 성격을 띤 '아나바(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자)장터'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소비적인 생활지양을 목적으로 9월말경부터 학생회관 중앙게시판에 대자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아나바 장터'는 각 단대별로 신청서를 배부하여 물품수집과 구입신청을 받는다.

또한 총여는 1학기 산대 여학우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기획 대자보를 학생회관 1층 로비에 게시할 계획이다.

박물관장 김태곤(국문)교수

샤머니즘학회 3대회장 피선

본교 박물관장 김태곤(문리대·국문과)교수가 국제샤머니즘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7월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2차 국제샤머니즘 학회 총회에서 김교수는 이 학회 3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샤머니즘과 공연예술(The Symbolic Ur--Meaning of Shamanism and Performing Art)'이란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기도 했다.

김태곤교수가 지난 7월 제2회 국제샤머니즘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수원캠 인복위 귀향버스 마련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추석귀향 버스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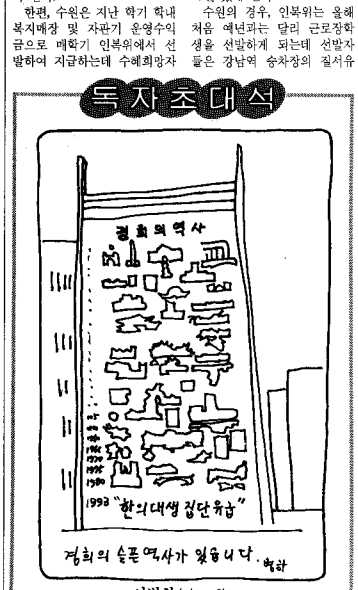
출발장소및 날짜:수원캠퍼스, 28일 오전11시, 예정노선: 영동선, 중앙선, 호남선, 경부선, 예매기간:13~17일(단체예매)/20~23일(단체, 개인예매), 예매장소:인복위(2804)

산대 '푸른하늘'지 발간

산업대학은 1학기중 장시 중단되었던 기관지 '푸른하늘'을 8일자로 복간할 예정이다.

'푸른하늘'은 각 과별 활동상황, 기간중의 시국정세, 동문 및 재학생의 취업현황 등을 내용으로 한달에 2번 발행하게 된다.

독자초대석



이병하(미교·3)

활용않는 시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평생 모교가 될 경희, 면학환경 조성해야

이제 몇달 있으면 졸업하게 될 4학년으로서 우리학교의 자그마한(?)문제점 또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금껏 4차례의 여름 방학을 보냈다. 그리고 머뭇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름의 시간들을 뒤로 하였다. 항상 방학만 되면 우리의 학생들은 필요치 않은 교민에 사로 잡히게 된다. 큰 맘을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책을 잡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마치 조용한 암자를 찾아든 기분이리라. 허나, 여건이 의외로 까다롭다.

집 나와 살면서 가장 그리운 분은 부모님이다. 그 다음은 구수한 된장국에 따뜻한 밥일것이다.

그러나, 값 비싼 학교앞 식당과 마지막 보루인 기숙사 식당은 어떠 하였는가? 가끔씩 휴가나오는 군대 친구들조차 "요즘 군의 민주화로 식사는 좋다"며 인상을 찡그리기 일쑤다.

또한 방학중의 기숙사 식당 운영은 어떤가? 큰 40일치 식권을 한꺼번에 모두 팔아먹고, 학생이 밥을 먹든, 안먹든 …

우리의 기숙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너무도 애매 모호하고, 기숙사 조차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여튼 기숙사 식권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만 해도 너무 많다.

또한, 방학을 맞아 그 흔한 TOEFL강의가 없는 곳은 이외만 암자뿐일 것이다. 심지어 지방의 작은 학교도 돈을 들여서라도 강의를 개설한다. 4년을 생활하며 TOEFL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도서관의 망치질 소리 만큼 듣기 어렵다.

왜 우리의 학우는 다른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쥐자은듯 공부해야 하는가?

공기좋고, 경치 좋은 산속에 파묻혀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다. 요즘,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lab실은 언제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이왕 먼지 앉힐 바에야 학생에게 개방을 하고, 들고 싶은 Tape을 듣고, AFKN도 청취하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요즘, 문제되는 수강신청도 그렇다. 누구를 위한 체제인지… 도서관도 5시에 문을 닫으면, 하루종일 수업에 쫓기는 학생은 그나마 어디서 면지 묻은 70년도 책을 찾을 것인가?

정문 길 또한 그렇다. 허구한 여름 방학은 어찌 보내고 개강을 서둘러 길을 파해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 주길 원하는지…

우리의 평생 모교가 될 나의 경희 대학은 즘 더 나아지고, 좋은 학생이 들어오길 바라는 만큼 훌륭한 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 진정한 학원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랑스런 경희 대학교를 우리 스스로가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백 현 수
〈전자·4〉

朔風

권력의 나팔수 '자처'하는 언론

86년 10월말 '북한이 금강산 계곡에 댐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외 통신의 짤막한 보도는 한반도의 남북땅을 난리를 만난것보다 더 큰 혼란속으로 몰아 넣었다. 정부와 모든 언론매체가 한당이 핵보다 더무서운 '북한의 물폭탄'에 서울시민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가공할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국민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 '그 붉은 아욕을 오히려 수장시킨다'는 명분으로 탄생한 것이 그이름도 평화로운 '평화의 댐'이다.

7년이 지난 지금 그 '평화의 댐'은 부도덕한 정권이 조작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말이 났다. 늦게나마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감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 없는 것은 사기극의 휴막을 과해쳤다고 거품을 무는 언론들의 너무도 자유자재한 변신때문이다. 아무리 권력의 전횡이 극심했고 정보의 통제가 살벌했던 시절이었지만 정부보다 한술더 흥분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했던 언론들이 아닌가. 최근 모방송사에서는 "당시 보도가 그때의 제약과 절곡을 뛰어넘지 못했던데 대해 사과하며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사실 진실보도에 전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참회의 방송을 했다.

그러면 제약과 절곡이 사라진 지금의 언론들은 권력과 시주에 초연한 진실보도를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이다. 강한자에겐 무릎 굽히고/약한자에겐 고개 숙이는/부관의 제왕/이라고 대중가요 가사에서 조차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정확한 언론의 현재 모습이다.

문민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현정권은 말그대로 잘나가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졌는데도 80%에 가깝다고 호들갑이다. 이 전무후무한 정권의 인기는 대통령의 놀라운 능력(?)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힘센권에 서서 권력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한 언론에 설반쯔의 공은 돌려야 할 것이다.

그 분 말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폐기처분되거나 기사 회생한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호남고속전철등등…. 절대화를 지향하는 조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데도 언론들은 스쳐가는 망로라도 비치지 않는다. 또 사정(司正)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비리인물 쫓아내기도 정적제거나 권력강화용이라는 험의가 짙다. 카지노·슬롯머신 수사의 결론은 어떤가. 악의 근원엔 근처에도 못가고 눈에 가시 하나 재판정에 세우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한양·라이프그룹의 붕괴와 그외 협의를 몇몇기업들의 과행이 줄을 잘못섰기 때문이라는 수근거림에 대해서도 언론은 뒷짐만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루테타 혹은 루테타적 사건'의 주역들이 아직도 권력의 한편을 차지하고 정치판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기막힌 보순에 대해서도 언론은 두눈 질끈 감고 있다.

오직 "잘한다"는 찬양일색이고 "고쳐야 한다"는 충고나 비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멀지않은 장래 현정권이 권력을 놓고 상도동으로 돌아갔을때 '민실의 야합'이라는 은밀한 탄생비밀이 도마위에 올려져 칼질당하는 사태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언론은 또 다른 권력의 나팔수로 재빠르게 변신해 있을 테니까.

〈無明〉

알림터

교수동정

김태영 교수 방중

【서울캠퍼스】▲김수중(문리대·철학)조교수=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문화유적지답사차 중국 방문 ▲김태영(문리대·사학)교수=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중국유적지 답사 및 학술연구차 중국 방문 ▲안회영(의대·이비인후과)교수=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학회참석차 벨기에와 독일 방문 ▲이기태(문리대·생물)조교수와 최현섭(문리대·생물)교수=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일본방문 ▲엄정행(음대·성악과)교수=8월 23일까지 미국 순회 가곡의 밤 참석차 미국 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천수(영문·1) ▲문혜정(화학·4) ▲안상복(영문·2) ▲오천석(지리·2) ▲조인수(지리·2) ▲진수장(법학) ▲도남준(법·3) ▲양승일(경영) ▲박진규(경제·3) ▲이호상(경제·3) ▲한상일(경제·2) ▲유성희(영교·4)

【수원캠퍼스】▲이혜영(서반아어·4) ▲김수정(행정·1) ▲이승준(환경·2) ▲민동헌(환경·4) ▲임창훈(환경·3) ▲임장현(유전) ▲송진희(우주·3) ▲김도형(기계·1) ▲이용철(섬유·2) ▲윤병숙(섬유) ▲윤석현(전자·2) ▲한백경(전자·3) ▲손광식(전자·4) ▲이종신(전자) ▲조상태(전자·2) ▲김영민(전자·4) ▲김태룡(화공·4) ▲김상래(화공·2) ▲구인환(건축·2)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이정희(국문·3) ▲김태희(국문·91) ▲김소연(영문·2) ▲김진용(영문·91) ▲김정희(영문·91) ▲조은주(지리·90) ▲김강욱(경제·88) ▲조경택(경제·89) ▲임준영(경제·93) ▲강성호(경영·88) ▲이용금(경영·83) ▲강헌(경영·87) ▲이호(무역·92) ▲배준범(무역·93) ▲유혁준(무역·93) ▲권대규(무역·89) ▲유홍은(무역·86) ▲나상희(무역·85) ▲문광식(무역·86) ▲김용학(무역·89) ▲지재학(회계·87) ▲박종권(회계·93) ▲이정(신방·92) ▲권희정(가관·93) ▲김미연(가관·89) ▲박철형(의과·88) ▲김성준(의과·90)

【수원캠퍼스】◇학생증=▲심화영(불문·92) ▲범희영(일문·92) ▲민영철(행정·92) ▲장환수(경영·93) ▲박지연(무역·90) ▲최영옥(무역·92) ▲강지선(회계·92) ▲유형석(물리·93) ▲김진성(화학·92) ▲이종규(우주·92) ▲김양일(임학·89) ▲이채윤(임학·93) ▲권희경(식가·90) ▲박범수(태권도·93) ▲정윤진(태권도·90) ◇도서대출증=▲조성한(물리·88) ▲김진성(화학·92) ▲김유리(유전·93) ▲김우정(우주·92) ▲김현기(화공·93) ▲김지영(토목·93)

동문모임

대원고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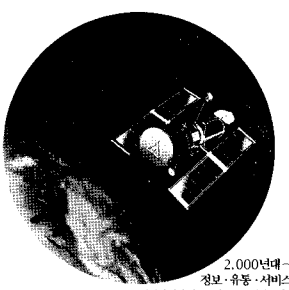
【서울캠퍼스】▲전일고·여고 동문회=오는 10일 오후 6시 정문앞 ▲울산향우회 체육대회=오는 11일 오후 2시 대운동장 ▲광주고·광주여고 동문회=오는 10일 오후 6시 공대앞 놀대방 ▲대원외고 동문회=오는 8일 오후 5시30분 경희회관 ▲광덕·대광고 동문회=오는 10일 오후 5시30분 공대앞 돌다방 ▲유신·영복 동문회=오는 10일 오후 6시 정문앞 ▲대원고 동문회=오는 10일 오후 5시 정문앞

【수원캠퍼스】▲영락고=오는 10일 오후 6시 공대식당 ▲포항고=오는 10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여수고=오는 6일 오후 6시 공대식당 ▲대아고=오는 9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환일·예일고=오는 6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국가기간산업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시멘트산업과 식품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분야인 증권, 단자, 보험 등을 계열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경제부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미래마인드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식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들었고, 80년대는 아찔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압축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요.

동양그룹

동양시멘트 · 동양제과 · 동양증권 · 동양투자금융 · 동양생명보험 · 오리온프리토레이 · 동양매직 · 동양예술 · 동양마트 · 동양정업투자 · 동양투자자문 · 동양선물 · 동양정보통신 · 동양산업기계 · 동양펙토링 · 서남재단